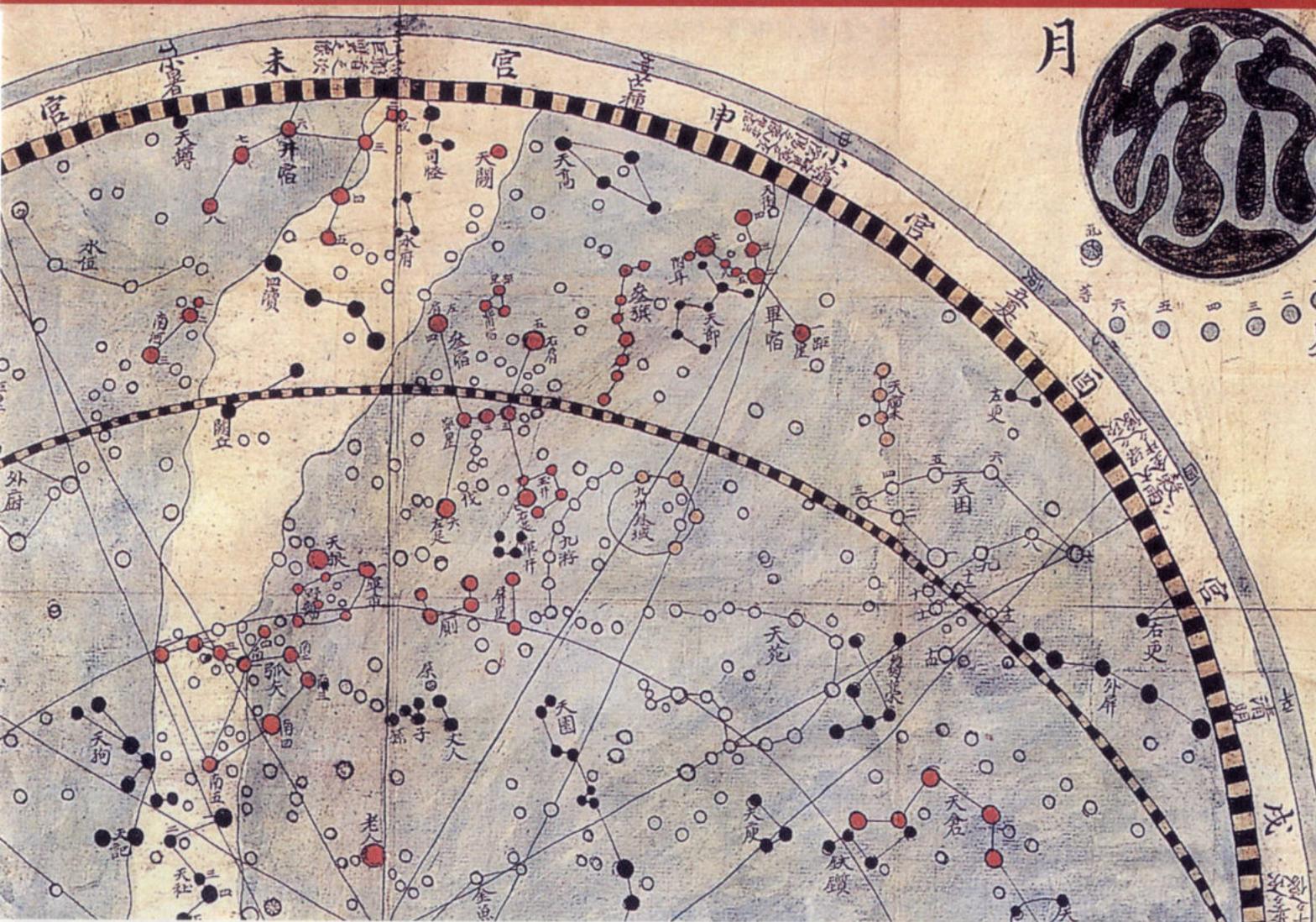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특집 우리 별자리 | 전시실 산책 내공은 역시 무섭다 - 조선시대 초상화 초본전 | 박물관 탐방 허준박물관 | 회원기고 자연과 인간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발보아 공원 |
 유물사랑 동 | 답사기 바실리카 양식의 한옥 | 전시 미리보기 요시노가리 유적 | 자원봉사를 하면서 교동동굴의 추억 | 박물관 주변 들꽃

2007년 가을 | 19호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클림트 시공물

미당 앞 맑은 새암

김영랑 (1903-1950)

미당 앞
맑은 새암을 들여다본다

저 깊은 땅 밑에
사코잡인 넋 있어
언제나 머니 하늘만
내어다보고 계심 같아

별이 총총한
맑은 새암을 들여다본다

저 깊은 땅속에
편히 누운 넋 있어
이 밤 그 눈 반짝이고
고의결몸 부르심 같아

미당 앞
맑은 새암은 내 영혼의 얼굴



잊혀졌던 하늘, 우리 별자리

이 천문도를 제작한 목적은 고대 제왕의 '하늘을 받드는 정치'를 본받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는 위로 天時를 받들고 아래로 民事를 삼가는 일이다. 하늘의 형상을 관찰하여 백성들에게 때를 알려준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이 부지런히 일하게 한다.

『천상열차분야지도』 - 권근 「序文」 중

天文은 하늘의 글월이자 무늬이다. 오랜 옛날부터 우리 선인들은 하늘에 새겨진 그것을 관찰하고 의미를 읽어내고자 노력해왔다. 하늘은 인간사를 주재하는 초월적인 힘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옛 왕들은 하늘의 권위를 빌어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굳건히 하려고 했다.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건국 신화도 하늘의 후광을 바라는 암시적 표현이 아니었을까.

우리나라 천문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고구려·백제·신라시대에 일어난 일식이나 월식, 유성과 운석의 낙하, 혜성 출현 등 수많은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다. 801년(신라 애장왕 2년)에 '일식이 예측되었으나 일어나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당시의 천문학이 일식을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고구려 고분 천정벽화에는 북두칠성·남두육성 등 다양한 별자리가 그려져 있다.

천문을 관측하는 일은 제왕의 의무였으며 이를 위해 백제에서는 曆博士·천문박사, 신라에

서는 日官이라는 관직을 두었다. 신라 선덕여왕 때 건립된 경주 첨성대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천문대이다.

고려시대에는 체계화되어 서운관이란 관서를 두었으며, 『고려사』 천문지에는 일식 132회, 월식 211회, 유성 547회, 태양흑점 34회 등 수 천 개의 천문 현상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경복궁과 창덕궁에 고려의 관제를 이어 받은 관상감을 두었으며 관천대를 축조하여 천체를 관측했다. 현재 경복궁 동쪽 현대 사옥은 옛 관상감 자리이며, 그 앞에 돌을 높이 쌓아 만든 관천대가 있다.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 천문기록이 실려 있다

1395년(태조 4년)에 천문도를 새로 만들어 돌에 새겼는데 바로 '天象列次分野之圖'이다. 우리나라 천문학이 빠른 속도로 발전한 시기는 세종때였다. 이 시기에 오목한 반구형 시계인 '앙부일구'가 발명되었고, 천체의 위치를 측정하는 簡儀, 천체 운동의 측정기기인 혼천의가 제작되었다. 또한 일식, 월식 예보와 행성 운동 계산에

天象列次分野之圖



▲ 「천상열차분야지도」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필요한 이론을 모아 『칠정산 내·외편』을 완성하는 등 천문학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관상감의 천문관측 일기는 구한말까지 상당량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일부 기록만 있을 뿐이다. 일제는 갑오경장 때부터 관상감을 축소하고 거의 폐쇄하여 수천 년에 걸친 천문관측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옛 천문도는 지상에서 관측한 성좌를 평면에

옮겨 놓은 것으로 천체관측의 기본좌표로 활용되었다. 태조본 '천상열차분야지도' [국보228호]는 고구려 천문도를 토대로 새롭게 관측하여 제작되었다. 세종때와 숙종때에도 석각본을 만들었으나 세종때의 것은 전해지지 않는다. 숙종 석각본과 비슷한 다수의 필사본과 목판본이 전해온다. 태조 석각본은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있으며 단연 세계 최고의 석각천문도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하늘의 모습을 차례 따라 펼쳐 놓은 그림'이란 뜻이다. 여기서 '차'는 하늘의 적도 부근을 세로로 열두 구역으로 나눈 단위이며, '분야'는 이에 대응하는 지상의 지역이다. 동근 원으로 표시된 천문도 안에는 가운데 북극이 있고, 태양의 길인 황도와 하늘의 적도가 서로 교차한다. 넓게 색칠된 은하수가 등갈게 하늘을 가로 지른다. 북극을 둘러싼 주극원이 있고 28수의 영역을 구분하는 선이 중심에서 바깥으로 뻗어 간다. 그려진 별의 개수는 1467개이다. 세종때 편찬된 『천문류초』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은하수 안쪽을 살펴보면 하늘의 세 도시인 3垣을 찾을 수 있다. 紫微垣, 太微垣, 天市垣이다. 옛 사람은 북극성을 옥황상제라고 생각해서, 그 주변을 임금의 사는 궁궐이라는 뜻으로 자미궁이라 했다. 자미궁의 담을 자미원이라 불렀으며 그곳의 별은 궁궐을 지키는 장군과 신하

이다. 북두칠성 아래로 내려오면 하늘나라 임금 이 대신들과 나랏일을 상의하는 태미원으로 여러 장수가 에워싸서 지키고 있다. 그 옆에 일반 백성이 사는 도시 천시원이 자리한다.

별자리를 이루는 불박이별은 經星이라 불렸으며, 이와 달리 별들 사이를 돌아다니는 밝은 별은 수성·금성·화성·목성·토성, 다섯 행성이다. 해와 달을 합쳐서 七政·七曜라 했고 오늘날의 요일이 되었다. 행성은 황도를 따라 움직이므로 칠정이 태미원에 드나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옛 사람은 임금이 명령을 내리면 칠정이 명령을 받아 제후인 경성에게 전한다고 여겼다.

3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28수가 담당하며, 이들은 7수씩 사계절과 四方神을 이룬다. 동방칠사는 청룡, 북방칠사는 현무, 서방칠사는 백호, 남방칠사는 주작의 모습을 본떴다. 또한 우리 조상은 각 방위의 神將 역할을 하는 斗星이 사방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북두칠성·남두육성·동두오성·서두사성이 그것이며, 이 네 두성이 만나는 중앙에 삼태성이 있다고 보았다.

동양 하늘의 모습은 인간세상을 닮아 있다. 하늘도 지상처럼 중앙을 왕이 다스리고 그 주변을 여러 제후들이 나누어서 지배한다고 여겼다. 별들을 대표하는 28수는 제후의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달은 날마다 모양이 변하지만 28일쯤 지

나면 제 모습을 찾는다. 그래서 달의 위치를 기준으로 별자리를 스물여덟 개로 나누어 28수라고 하였다. 3원과 함께 하늘에 펼쳐진 28수 별자리는 천구의 적도 둘레에 있는 밝은 별로 주변의 별자리를 거느린다.

동방칠사에 속한 별자리는 角, 亢, 氐, 房, 心, 尾, 箕이다. 청룡의 뺨에 해당하는 각수는 서양의 처녀자리에 해당하는 별로 봄이 왔음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별이다. 항수는 북두칠성의 꼬리 방향으로 내려가다 처음 만나는 별이다. 북두칠성은 인간의 수명을 주관하는 별로, 계절을 알려주는 거대한 천문시계다. 한밤중에 북두칠성의 자루가 향한 방향을 보고 철을 따지기도 했다. 봄에는 동쪽을, 여름에 남쪽을, 가을에는 서쪽을, 겨울에는 북쪽을 가리킨다. 남쪽하늘에 늘어서 있는 방수는 우리나라 전설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타고 올라간 동아줄이라고도 한다. 그 위쪽 하늘에 해별 日星이 있고, 반대편 묘수에 月星이 있으니 그럴 듯하다.

북방칠사 별자리는 斗, 牛, 女, 虛, 危, 室, 壁을 포함한다. 두는



▲ 일성정시의 복원,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 고구려 덕화리 고분벽화 천정부

곡식의 양을 재는 뒷박인데 남쪽하늘에 걸려있는 뒷박을 남두육성이라 하였다. 남두육성이 밝게 보이면 풍년이 들고 어두우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다. 두수에는 농사일과 관련된 별자리가 많다. 하늘담 천계 별자리는 기후와 시기를 관장하고 백성의 삶에 대한 별점을 보는 별자리이다. 하늘뭇인 천연별자리는 논과 밭에 물을 대며 어업에 관한 일도 맡고 있다. 조금씩 더워지는 소서(7월 7,8일경) 자정무렵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머리 위에 직녀별이 뜨고, 남쪽 하늘에 견우별이 뜬다.

서방칠사에는 奎, 婁, 胃, 昴, 畢, 觜, 參의 별자리가 있다. 규수는 문필의 신으로 섬겨졌으며 서양의 안드로메다자리에 해당한다. 규장각의 '규'는 이 별자리의 명칭에서 온 것이다. 늦가을과 겨울에 맨 먼저 눈에 띄는 별자리는 나비처럼 생긴 삼수이고, 희뿌연 기운처럼 보이는 것이 묘수이다. 옛사람들은 음력 2월 6일이면 달이 좀생이별에 얼마나 가까운가로 그해에 풍년이 들지 점치곤 했다.

남방칠사에 속한 별자리로 井, 鬼, 柳, 星, 張

翼, 軫이다. 별자리에는 특이하게도 귀신 별자리가 있다. 귀수는 사망과 질병, 제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였다. 귀수 안에 있는 뿌연 기운은 적시기인데 '시체가 쌓여 있는 기운'이란 뜻이다. 토지신인 天社별자리는 곡식의 신인 稷과 합하여 사직이라고 부른다.

실제 하늘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별자리를 찾기는 어렵다. 다행히 조선 철종 때 천문학자 남병길이 지은 『星鏡』이라는 책에 '새 천문도'의 별의 좌표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남반구 별까지 수록하였다. 이 좌표로 동양 별자리와 서양 별자리를 맞출 수 있으나, 본래 형태와 달라진 별자리들이 많다.

천문은 그 시대의 사상과 문화를 담고 있다. 우리 별자리에는 우리만의 정서가 녹아 있다. 선인들이 오랜 세월 천문 현상을 관측·보존해 온 것은 농사를 위한 역법이나 왕권의 정통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쩌면 별자리 속에 깃든 역사와 정신이 함께 이어지길 바랐던 것은 아닐까. 잊혀졌던 우리 하늘의 그 별들을 본다. 정

상상력이 별을 빛나게 한다

옛날엔 친구들이 많았다. 장난감도 TV도 없던 시절, 밤이면 별을 보며 놀았다. 서로 보아달라고 다투듯 눈망울을 반짝이는 별 덕분에 시간가는 줄 몰랐다. 무수하게 펼쳐진 별밭에서 밤새 술래잡기며 소꿉놀이를 했다. 은밀한 속내를 주고받던 나만의 별도 있었다. 떨어지는 별을 보면 얼른 소원을 빌곤 했는데……. 그러나 별뚱별의 꼬리처럼 희미해져 버린 친구들, 요즘도 잘 지내고 있는 것일까?

우리 겨레가 가장 사랑한 별자리는 무엇일까? 아무리 천문학에 문외한이라고 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 별, 바로 북두칠성이다. 고조선의 고인들에게도 새겨진 것을 보면 북두칠성에 대한 우리 겨레의 오랜 사랑을 알 수 있다.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을 향해 소원을 빌던 할머니의 모습은 아직 우리 뇌리에 남아 있다. 가족의 무병장수와 입신양명을 바라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무어 그리 다르겠는가.

예로부터 민간신앙과 도교에서 칠성을 신으로 모셨고 불교에서도 절 안에 칠성각을 짓고 칠성여래 불화를 두었다. 무녀가 쓰는 칼이나 무덤 속에 그린 별자리 등에도 북두칠성이 많다. 조선시대에는 칠성판에 누워야 저승길을 무난히 통과한다고 믿었다. 칠성의 역할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했지만 생로병사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칠성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북두칠성에 있는 삼신할미가 아기를 점지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 중에 칠성의 특별한 기운을 받은 사람이 많다. 김유신은 七曜의 정기를 타고나 등에 칠성 무늬가 있었다고 한다. 강감찬의 탄생은 더욱 예사롭지 않다. 북두칠성의 네 번째 별인 문곡성이 人家에 떨어지더니 그 곳에서 강감찬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전한다. 서울대 근처의 낙성대라는 지명이 여기서 유래했다. 도교에서는 환인 - 환웅 - 단군 - 동명왕 - 강감찬으로 道脈이 흐른다고 하여 그를 신격화했다.



▲ 서곡리 고분벽화, 14세기, 파주시 직동면 서곡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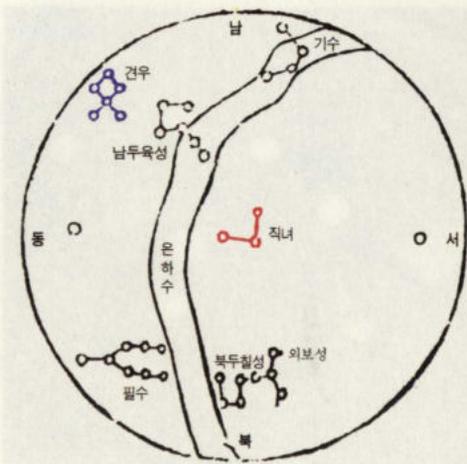
잠깐만 가지마오 이 술 한잔 먹어보오
 북두성 기울여 창해수 부어내어
 저 먹고 나 먹거늘 서너잔 기울이니
 화풍이 산들산들 두 겨드랑이를 추켜드니
 구만리 창공에 어찌면 날 듯도 하구나
 이 술 가져다가 사해에 고루 나뉘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잔 하자구나

저근덧 가디마오, 이 술 ㅎ 잔 머거 보오
 북두성 기울려 滄海水 부어 내어
 저 먹고 날 머겨늘 서너 잔 거후로니
 和風이 翳翳 ㅎ야 兩腋을 추혀 드니
 九萬里長空애 저기면 놀 리로다
 이 술 가져다가 四海에 고로 놀 화
 億萬蒼生을 다 醉케 밍근 후의
 그제야 고터 맛나 ㅅ ㅎ 잔 ㅎ 잣 고야

풍류를 즐기는데도 북두칠성이 빠지지 않았다. 정철이 관동지방을 여행하다가 푸른 바닷물로 술을 빚어 별 잔에 담아 마셨다는 詩歌가 전한다. 별을 술잔에 띄워 마셨다는 詩는 여럿 있지만 그것과는 규모와 품격이 다르지 않은가. 또한 고려의 茶僧 진각국사는 '북두칠성으로 은하수 길어 한밤에 차 달이니/ 차 연기 싸늘하게 달 속의 계수나무를 감싸네(斗酌星河煮夜茶 茶

煙冷鎖月中桂)' 라고 노래했다. 그 고아한 천상의 茶會에는 누가 초대 되었을까? 은하수로 우려 낸 차 한 잔을 나도 마셔보고 싶다.

어린 시절 들은 견우직녀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있을까? 고구려 덕흥리 고분 벽화에 견우와 직녀가 그려져 있다. 떠나기 싫은 마음 차마 들키고 싶지 않은 듯 견우는 굳은 채 앞만 바라본다. 속수무책으로 떠나는 님을 배웅하는 직녀의



▲ 견우성과 직녀성의 위치



▲ 고구려 덕흥리 고분벽화, 견우 직녀도

손은 마치 기도하는 듯하다. 그 사이를 흐르는 은하수는 둘이 흘린 눈물 자국이 아닐까. 견우직녀성 설화가 얼마나 오랜 세월동안 우리 겨레의 사랑을 받았는지 이 벽화가 알려준다. 그 애뜻한 사연은 徐廷柱의 <견우의 노래>에서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높었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물살 몰아갔다 오는 바람만이 있어야 하네.

오, 우리들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銀河의 물이 있어야 하네.

돌아서는 갈 수 없는 오롯한 이 자리에
불타는 홀몸만이 있어야 하네!

織女여, 여기 번쩍이는 모래밭에
돌아나는 풀썩을 나는 세이고……

허이언 허이언 구름 속에서
그대는 베틀에 북을 놀리게.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七月 七夕이 돌아오기까지는,

검은 암소를 나는 먹이고
織女여, 그대는 비단을 짜세.

삼태성은 예로부터 점성술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별자리이다. 사방의 방위 별 한가운데 위치한 여섯 개의 별인데, 사슴 발자국처럼 쌍

으로 무리지어 우리 정수리 위에 높이 뜬다. 북두칠성과 함께 여러 고분 벽화에 나타난다. 하늘나라의 정승이나 사람의 귀천을 따지는 품계로도 여겼다. 조선시대 고소설에는 삼태성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암시가 자주 등장했다. 하늘에서 죄를 지어 땅으로 유배되어 온 이 사람은 나라를 구할 장수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신출귀몰한 어사 박문수의 기행에 삼태성의 출현이 있었다는 걸 아는가?

어느 날 박문수가 깊은 산속 주막에서 하루를 묵게 되었다. 갑자기 붉은 두루마기에 푸른 명주바지를 입은 세 명의 미소년이 나타나더니 거지꼴을 한 박문수에게 밥을 사주었다. 이튿날도 똑같은 호의를 베풀자 박문수는 점차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내막을 알아보려고 그들을 따라나섰더니 큰 부자가 집을 짓는 곳으로 들어갔다. 마침 목수가 대들보를 올리려고 하는데 한 소년이 멈추라고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끓는 기름 솥 위에서 대들보를 자르라고 하는 게 아닌가! 모두 어리둥절해 있는데 부자가 나무를 아낌없이 내놓았다. 놀랍게도 꿈틀거리는 지네가 대들보 속에서 기어 나왔다. 지네 독에 식구들의 목숨을 잃을 뻔 했던 부자는 박문수와 소년들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세 소년은 자신들을 삼태성이라고 소개한 후 홀연히 빛으로 변해 하늘로 올라갔다.

南極老人星은 우리나라에서 잘 보이지 않는 별이다. 그 희소성이 가치를 높였다고나 할까.

제주도나 남쪽 지평선 근처에 가는 길이면 우리 조상들은 노인성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 별을 보면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어서 壽星이라고 했다. 별이 관측되기만 해도 왕의 수명이 길어지고 나라가 편안해진다고 여겼다.



▲ 남극노인, 조선, 선문대학교 박물관 소장

노인성을 인격화하여 그린 壽星圖가 남아있다. 주로 長壽를 기원하는 회갑 축원용 그림이었다. 높이 솟은 머리에 푹 튀어나온 이마, 흰 수염을 기른 작달막한 키의 노인이 긴 옷을 입고 술병을 든 동자와 함께 구름 위에 올라 있다. 걱정 없이 태평스런 표정이다. 손에 든 긴 지팡이와 머리 위의 해와 달도 모두 장수를 상징한다. 동자가 부어주는 한잔 술을 마시며 계수나무 아래 방아를 짚고 있는 옥토끼와 더불어 영생을 누리라는 의미일까?

오랜만에 밤하늘을 올려다 본다. 그 많던 별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잠시 문명의 이기에 정신을 파는 사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던 별들이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 연오랑 세오녀의 고사, 월궁으로 가 두꺼비가 된 항아의 전설 등, 하늘에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펼쳐져 있었다. 끝없는 하늘을 보며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아무진 꿈을 키우곤 했는데……

마음속에 새겨진 별을 불러내 본다. '별하나에 추억과 / 별하나에 사랑과 / 별하나에 쓸쓸함과 / 별하나에 동경과 / 별하나에 시와 / 별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별은 상상력으로 빛을 얻는다. 어느새 마음이 별처럼 초롱초롱해진다.  河

내공은 역시 무섭다

— 조선시대 초상화 초본전

진 수 옥 | 회원

그리워해서 그리니 그림이 되고 글이 되었다 고들 한다. 사진이 흔한 요즘 그림이 지닌 내공의 무게는 별로 느끼지 못한다. 특히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그리는 일은 복사기 대신 손으로 글을 베끼는 일 만큼이나 의미 없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손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이도, 알아주는 이도 드물어지게 된 것일까. 자장면 한 그릇에도 굳이 손자장이라고 손을 내세우는 세태고 보면 더욱 그렇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밑그림인 肖像畵 草本을 모아 전시한다. 초상화는 정성과 품이 많이 들어간다. 직관과 여백을 중요시하는 문인화 등과는 달리 꼼꼼하고 세밀하다. 특히 조선시대의 초상화라고 하면 그림만 보고도 주인공이 앓았던 질병까지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다는, 실제와 똑같이 그린 그림들이 아니던가. 대개 초본은 간단하게 그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남아있는 초본은 거의 완성본에 가까울 정도로 얼굴묘사가 자세하다. 윤곽은 물론이고 채색까지 완벽하게 한 것도 있다.

이번 전시는 초상화를 그리는 공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한다. 먼저 기름을 먹인 한지에

버드나무를 태운 숯으로 윤곽을 그리고 먹선을 올린다. 색칠은 종이 뒷면에 칠하여 앞의 윤곽선 안으로 배어 나오게 하는 背彩기법으로 하였다. 이 기법을 쓰면 마치 번쩍이는 비단옷에 얇은 한 겹의 베일을 두른 듯 아련하면서도 깊은 맛이 감돈다. 이미 고려불화에서도 사용된 기법이다. 제대로 된 색이 나오는지 초본에 색까지 다 입혀봄으로써 완벽한 샘플을 만든다. 이때 주인공과 다른 점이 있으면 다시 수정작업을 거치고 초본을 본떠서 비단에 정식으로 그린다. 蔡濟恭의 초상화 초본과 정본, 崔德之의 초본과 정본이 같이 전시되어, 화가가 어떻게 보완을 했는지 제작과정을 다 볼 수 있다.

초상화의 완성에 들이는 정성도 놀랍지만, 주인공과 터럭 하나도 다르게 그리지 않았다는 정확함이야말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斜視인 채제공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인공 모두 검버섯이나 목 부근의 혹까지 사실대로 그려졌다. 紗帽의 날개 부분에 아롱지는 잔물결무늬가 선명하고, 소매사이로 반쯤 드러난 오른 손은 새끼손가락만 손톱을 길게 길렀다. 관복의 흉배에 수놓인 무늬에선 수실의 도톰함마저 느껴진다. 눈가의 잔주름은 물론이고 턱수염도 한올 한올 셀



수 있다. 오히려 요즘 사진에서 흔히 하는 손보기 작업이 없으니 사진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다.

검버섯이나 흑갈이 세월의 두께를 나타내는 징표와 마주하면 민망하여 눈을 돌리고 싶기도 하다. 인물들이 거의 중년을 지나 노년에 접어든 남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그렇다. 왜 이렇게까지 사실에 충실했을까? 당시 사람들도 검버섯 같은걸 노년의 아름다움으로 여기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지금 우리들처럼 어떻게든 젊은 티를 내고 싶어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어차피 초상이란 그 주인공을 살아생전 보지 못한 후손들에게 길이 전해 주려는 의도에서 만들고, 그렇다면 위엄있고 활기찬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으로는 기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곧이곧대로 드러냈다. 거죽 아래 힘줄과 뼈를 고스란히 드러낸 앙상한 노년의 모습에서 만만치 않은 세월의 무게를 절감한다. 슬며시 덮어주고 싶다.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들의 붓이 그러했을까? 임금의 실정까지 낱낱이 기록한 왕조실록처럼 무섭도록 정확하다. 아무런 가치판단이나 감정의 개입없이 오직 보이는 대로, 있는 대로가 중요하다. 조선의 시대정신은 이 정도로 완벽한 솔직성을 요구했나보다.

그러나 한 터럭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속에는 서릿발 같은 엄정함이 숨어 있다. 그 치열함에 기가 질리기도 한다. 도달하려는 수준이 까마득하게 높기만 하다. 초상화는 그저 그림이 아니라 주인공의 인격과 정신, 아니 온 생애가 녹아있는 그 무엇이 돼야 하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번 전시로 새롭게 알려진 요절한 천재화가, 任希壽가 그린 초본을 보면

초상화란 주인공의 사람됨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다. 얼굴은 주인공의 품모를 한눈에 나타낸다. 노년의 얼굴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인생의 모든 굴곡을 어떻게 넘었는지, 기쁨과 슬픔은 어떠했는지, 무엇을 얻었고 포기했는지 흔적이 역력하다. 채제공과 최덕지, 李聖俞는 초상화로 남은 덕분에 지금 우리 곁에 구체적인 인물로 살아남았다.

인류학자들은 문자가 나타나면서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문화의 전통이 사라졌고, 많은 이야기와 신화들이 그 다양한 빛을 잃었다고 안타까워한다. 입으로 옮겨질 때 따르기 마련인 생동감과 덧붙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초상화 역시 사진에 밀려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반드시 필요했던 관찰과 묘사의 힘은 더 이상 찾기 어렵다. 말이 문자에 밀려 목소리의 울림을 잃은 것처럼 그림은 사진에 밀려 정교한 손맛을 잃었다. 그래서인지 높은 성벽을 차곡차곡 쌓아올리듯 정성들여 그린 초상화 앞에 서면, 그림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드러냄의 무서움까지 느껴진다. 아, 사는 게 이렇게 치열하고 정확한 거구나, 나는 너무 대충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두려움까지 말이다. ㄷ



현대와 2전의 절묘한 만남

- 허준박물관

웰빙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린다. 삶의 質에 가치를 두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 시대에 한의학은 우리의 좋은 지킴서이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듯이 사람에게 눈과 귀가 있다. 하늘에 낮과 밤이 있듯이 사람에게 잠들과 깎이 있다. 하늘에 천둥과 번개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기쁨과 노함이 있다.' 동의보감 서문이다. 허준은 세상의 모든 이치를 인체에 담아 백성에 대한 사랑을 토양으로 仁術을 실천한 醫聖이다.

구립 허준박물관은 강서구의 많은 관심 속에 2005년 개관하였다. 동의보감 집필지인 허가바위 옆에 위치하여 허준의 뜻을 널리 기리고자 한다. '서울사랑시민상'을 받은 산뜻하고 세련된 입구를 들어서면 허준과 내의녀의 캐릭터 모형이 관람객을 맞는다. 한의학 박물관이라 다소 딱딱하고 지루하리라는 선입견은 인자한 허준할아버지에게 기념 스탬프를 찍으면서 사라진다. 강서구의 옛 모습인 楊川縣을 보며 허준이 어디에서 활동하였는지 검색대에서 직접 확인해 본다. 계단을 따라 주전시공

간으로 올라가면 내의녀 복장을 한 자원봉사자들이 환한 미소로 맞는다.

첫 전시실인 허준기념실은 우리나라 한의학과 함께 그의 생애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였다. 하늘·땅·인간의 세 가지 요소가 몸속에서 상징화되어 우주, 자연과의 승화로 승화된 인체도(신형장부도)가 보인다. 세 방향에서 관람하게 입체 판넬을 입혔다. 한의학사 연표를 통해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동양의학의 보배로운 거울', 동의보감의 제작과정과 보관법을 모형으로 만들어 이해를 돕는다. 내경·외형·잡병·탕액·침구의 25권이 원형의 전시대를 중심으로 진열되었으며 모니터에서는 책의 내용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허준은 일생을 통해 7권의 저서를 남겼다. 중국 六朝 고양생의 原著를 교정한 「찬도방론맥결집성」과 한글풀이 의서인 「언해태산집」, 「언해구급방」 등이 있다. 출산, 구급, 두창(천연두) 등 중요한 책은



다 한글이다. 동의보감에도 637가지의 약재가 한글로 쓰여 있다. 한자를 모르는 백성을 위한 선생의 따뜻한 마음이다. 여러 종류의 옛 의학서적들 속에서 국사시간에 배웠던 「향약집성방」을 발견하자 반가움이 앞선다. 1489년에 저술된 「구급간이방」은 허준의 저서인 「신찬벽온방」과 더불어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이다. 또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글 의학서로 국어 음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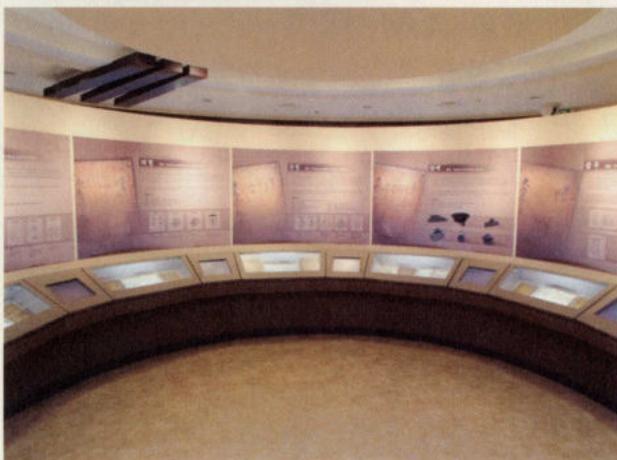
약초와 한약재실은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재들을 표본으로 만들고 약초에 얽힌 전설 등, 터치스크린에서 자세하게 접할 수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경옥고, 십전대보탕, 쌍화탕의 한약재를 전시하고 효능을 알려주어 더욱 친밀감이 느껴진다. 의약기실은 삼국시대부터 조선까지 의약기의 변천사를 연표와 함께 펼쳐 놓았다. 의녀들이 사용하였던 침통에 시선이 간다. 화려한 노리개 모양으로 웃고름에 달았던 듯하다. 예쁘게 치장하고 싶어하는 여인의 마음이 살짝 엿보인다. 허준이 근무하던 내의원을 창덕궁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복원하였다. 왕실의 진료를 담당할 약방과 장례식 관련 물품을 보관하던 영의사도 있다.

허준박물관은 전체가 다 체험 공간이다. 컴퓨터 게임으로 인체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며 영화도 감상한다. 전시장 곳곳에 애니메이션, 홀로그램, 모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약재를 직접 갈고 약봉지를 싸보면서 한의사가 되어 본다. 웬지 한약재 냄새가 푸근하게만 느껴진다. 사상의학에 근거한 나의 체질을 찾아보았다. 의약기를 현대적으로 조형화한 조형물을 보는 재미 또한

쏟아진다. 현대와 고전의 절묘한 만남이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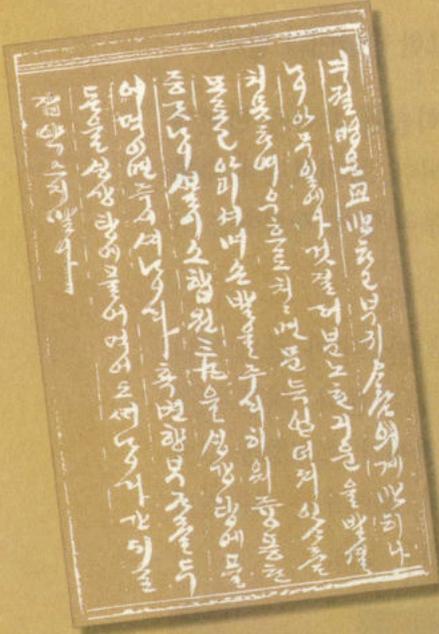
또 하나의 볼거리는 생태 학습과 휴식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옥상의 약초공원이다. 동의보감에 수록되어 있는 약용식물 위주로 우리 땅에 자생하는 식물들을 심었다.

철제 동의보감 모형을 나무 한그루가 뚫고 지나간다. 한강이 흘러가듯 역사도 흐른다. 허준 선생이 동굴 안에서 책을 쓰고, 겸재가 소요정을 그렸던 그 곳에 지금 내가 서 있다. 불어오는 강바람에도 심의 스트레스를 날려 보낸다. **4리**



허준 선생의 올바른 이해

김래정 | 허준박물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성인으로 흔히 聖君 세종대왕, 聖雄 이순신, 醫聖 허준을 손꼽는다. 그러나 허준 선생의 경우 그 지명도에 비해 역사적 자료가 매우 빈약하다. 소설이나 TV

사극의 영향으로 과장과 미화가 어우러진 허구적 내용을 사실로 알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일반인에게 잘못 알려진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출생년도와 장소에 대해 여러 주장이 있다. 「太平會盟圖」(보물 제668호)를 근거로 하여 1539년 己亥生이 공식적인 기록이라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1537년(丁酉), 1545년, 1546년, 1547년 등으로 기재된 자료와 족보들이 있다. 출생 및 활동지역은 경기도 楊川縣(현 서울 강서구)이다. 산허거사가 지은 「파릉산집」에 근거하여 허준 선생은 고향 인근 공암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한다. 묘소가 있는 곳인 파주 출생설도 있으나 아들 겸이 파주 목사를 역임한 것으로 보아 가능성이 적다. 조선시대 상피제도에 위배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장수, 부안, 나주, 심지어는 소설에 근거하여 용천, 산청 등의 설이 난무하여 혼란을 가져온다.

양천 허씨 문중에서는 허준의 어머니를 밀양 손씨라고 한다. 그러나 일부학계에서는 영광 김씨, 일

직 손씨로 보는 견해가 있다. 부인은 안동 김씨이고 이다희와 의녀 이에진은 실존인물이 아니다. 43년간 내의원에 근무하게 된 것은 아버지 허론과 동문 수학한 유희춘이 이조판서 홍담에게 추천하여 이루어진 것이기에 의과시험의 합격자 명부인 「의과방목」에는 당연히 그의 이름이 빠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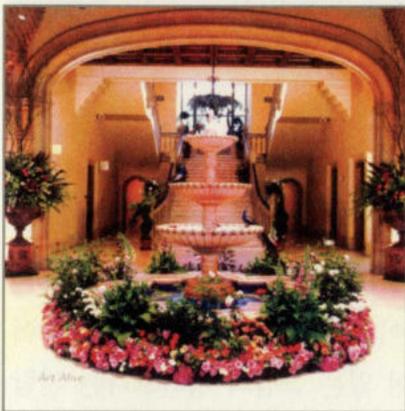
스승으로 알려진 柳義泰는 가공인물이다. 30여년간 직속상사로 함께 재직한 楊禮壽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발음이 비슷하여 경남 진주, 산청 일대에서 활약하던 劉爾泰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그는 약 100여년 후대 사람이다. 더구나 스승의 시신해부 등은 당시로선 있을 수 없는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허준 선생의 친인척 중에는 의서 저술가와 의학적 지식이 높은 분이 매우 많아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 집안에 의서가 많으니 스스로 공부할 분위기였을 것이다.

선조사후 1년 8개월간 의주로 귀양갔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실록」에 ‘中途(付處)’, 放逐(鄉里), ‘門外(出送)’ 등의 용어들이 다수 등장하는 점으로 미루어 상당 기간 고향 인근에 머물면서 『동의보감』을 비롯한 저술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1604년 선조가 임진왜란 공신책봉자 109명 중 살아있는 62명의 초상화를 그리라는 어명을 내렸다. 허준 선생의 초상화도 당연히 그려졌을 것이나 현전하지 않는다. ㄷ

자연과 인간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발보아 공원

조 애 경 |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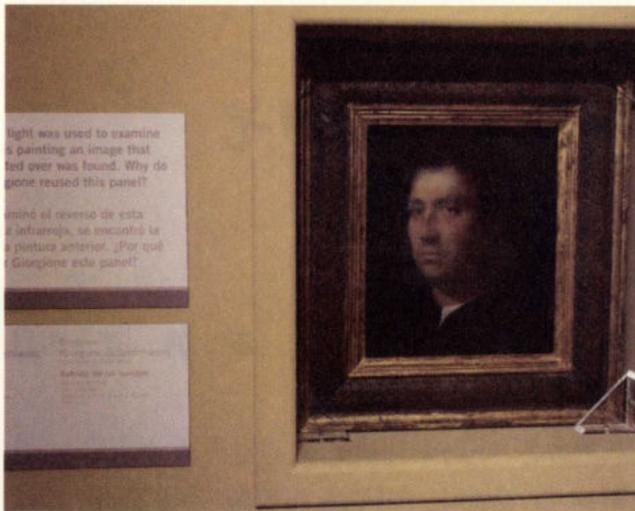


사막처럼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의 샌디에고, 그러나 습하지 않아 서울의 8월을 생각하면 지낼 만했다. 먼저 찾은 곳은 복합문

화공간인 'Balboa Park'였다. 공원이름은 파나마 지협을 카리브 해에서 횡단하여 태평양을 발견한 최초의 유럽인 발보아를 기념하기 위해 붙여졌다. 샌디에고 미술관, Timken 미술관, 사진 예술관, 인류·역사·자연사·철도·항공·자동차박물관 등의 전시관과 식물원, 동물원, 스페인 예술마을 등등 지도로 하나하나 집어보기도 엄청난 규모이다. 이런 복합문화공간이라면 우리의 국립중앙 박물관이 지향하는바 아닌가! 거기에 테마 광장과 정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높은 아치형의 Cabrillo다리를 건너 공원에 들어서니 환상적인 스페인 풍으로 세워진 샌디에고 문화중심지의 모습이 드러났다.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는 분수는 마치 환영의 박수를 쳐주며

뜨거움은 이곳에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다. '이곳을 어떻게 담야 할까? 그래 욕심을 버리고 그냥 편하게 나를 풀어놓자.' 마음 가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San Diego Museum of Art'는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미술관이다. 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독일·스페인 대가의 작품 그리고 아메리카·19세기 유럽·남아시아 화가들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미술관 외관 벽면에 조각상으로 서 있는 벨라스케스, 무리오, 엘 그레코 등의 안내를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다. 뉴욕에서 보았던 거대 미술관들과는 첫인상부터가 달랐다. 안주인의 손길이 곳곳에 배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처럼 아늑했다. 마침 'Impressionist Giverny / A Colony of Artist, 1885-1915'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다. 프랑스 지베르니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던 북미 출신 화가들의 작품 전시였다. 지베르니하면 모네가 바로 떠올려지는데, 과연 어떤 작품들일까? 대체로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이었다. 익숙한 이름 '모네'나 '밀레'가 간간히 눈에 들어왔다. 그림 속의 자연은 인간의 욕심을 사라지게 하고, 삶의 단편을 묘사한 그림들은 그 당시를 상상하게 해주었다. 또 다른 전시 "Backs"는 가끔은 우리들이 궁금



해 하는 그림의 뒤쪽 모습을 주제로 하고 있다. 간 이벽을 세워 벽면을 뚫고 그림을 걸어서 앞면과 뒷 면을 모두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액자 뒤에 적힌 메모나 표시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일반인의 작은 호기심도 전시의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미술관의 멋진 그림들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관람객들을 인도하는 자원봉사자의 모습이었다. 편안하게 대화하듯 자신의 일상적인 삶을 그림 속 모습과 비교하며 설명했다. 관람객 대부분이 연세 지긋한 노인들이라는 점도 인상 깊었다. 떠밀리듯 바쁘게 발걸음을 옮기며 전시품을 훑어보는 한국의 전시실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돌보기를 올렸다 내렸다하며 안내자의 설명에 때론 파안대소하면서, 대화를 나누며 감상하는 그들이 한없이 부럽기만 했다. “우리 집 정원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이 그림 속 같아지지 않아 속상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원을 가꾸세요?”라는 자원봉사자의 질문에 여기저기서 자신만의 정원 가꾸기 노하우가 쏟아져 나왔다. 이런 분위

기 속에서 어찌 그림이 가슴에 와 닿지 않겠는가! 분명 그들에게 그림은 정적인 관람의 대상이 아닌 실생활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화가의 이력을 모른 들 어떠하고, 제목이나 담겨있는 주제를 모르면 어 떠한가. 정형화되어 있는 그림의 평가보다는 관람 자의 솔직한 느낌이 진실되지 않을까. 짧은 영어 실 력에 풍요로운 그들의 대화를 다 엿들을 수 없음이 안타까웠다. 이들이 전해주는 따뜻함으로 인해 미 술관에서의 시간은 내내 편안하고 행복했다.

‘Timken Museum of Art’를 나서는데 남편이 반대편 건물을 가리키며, “저기 여신상들을 보면서 떠오르는 것 없어?”라고 물었다. ‘Casa de Balboa’라 불리는 건물이다. 이탈리아 르네상스 양식으로, 가슴이 풍만한 여인 나신상들이 무릎을 꿇고 지붕 처마를 떠받치고 있다. 아하! 강화도 전 등사의 네 귀퉁이에 쪼그리고 앉은 채로 추녀를 떠 받치고 있는 여인 나신상, 바로 그것이다. 전설에 의하면, 전등사의 여인 나상은 도편수를 배반하고 말길 돈마저 챙겨 달아난 여인이 별을 받는 형상이 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곳의 여인은 어떤 업보를

깊어지고 있는 것인지. 안내서에는 조각가가 즐거움을 위해 만들었다고만 하는데. 비록 전설이기는 하지만 작은 것 하나에도 이야기를 담고, 의미를 부여하려는 우리들이 좀 더 감성적이지 않을까. 나만의 생각이라도 좋다. 슬그머니 어깨가 으쓱해진다.

자유 속에 질서가 있고, 질서 속에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발보아의 모습. 잔디밭 곳곳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 놀고, 크리켓 경기를 즐기거나 한가로이 앉아 대화를 나누는 모습에서 평화로움이 느껴졌다. 미술관 옆 놀이터, 마치 영화 제목 같지 않은가! 예술과 문화를 즐기고 나오면 크게 기지개를 펴며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지치면 잠시 앉아서 꽃들을 감상하거나 조용한 숲을 유유자적 거닐 수 있는 곳.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공간을 마음껏 즐기는 것 같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시실서 보았던 아이들은 대체로 자유로우면서도 진지하게 전시물에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관람보다는 사진 찍기에 더 열중한 부모들, 선생님이 내준 과제의 빈칸을 채우는데 급급한 아이들, 잔디밭에 들어서기라도 하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호루라기 소리……. 이들이 누리는 이런 환경과 분위기가 부럽기만 했다.

여름의 긴 해도 찾아들기 시작했다. 귀갓길 마지막으로 내 발길을 머물게 하는 곳 'Spreckels Organ Pavilion'.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파이프 오르간이 코린트 양식의 웅장한 열주에 둘러싸여 있는 광장이다. 햇살을 즐기며 기둥에 기대어 선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었다. 붉게 물들어 가는 석양은 내게 어떤 하루였는지 물었다. 전부를 다 보고 느끼지는 못해 아쉽지만,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내 마음을 전했다. 아쉬움에 자꾸만 뒤돌아보며 작별인사를 나누었다. 자연과 인간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발보아 공원에게……. 



똥

흙덩이같이 생겼는데 돌덩이처럼 딱딱하다. 곳곳에 까만 점이 나 있고, 그 점보다는 조금 더 큰 구릿빛 조각도 박혀 있다. 똥조각인가? 그렇다면 사람의 것은 아닌데? 냄새를 맡아본다.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는다. 발굴 중 쉬는 시간에 유물상자에 담긴 물건 하나를 보고 있는 중이다. 엄지손가락만한 것을 두고 열심히 관찰한다. 깨끗하게 세척되어 유물수습봉투 위에 놓여 있다. '1피트, 제1패각층'이라고 되어 있다. 똥이다. 좀 더 고상한 말로 糞石이다. 똥이 굳어 화석화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갑자기 머리가 쭈뼛한다. 배설행위에서 느끼는 인간의 원초적 카타르시스를 그 결과물에서 거꾸로 감응하는 아이러니이다. 고고학 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현장의 기쁨이기도 하다. 조사원들과 학생들은 모두 이놈을 만져보고 코에 갖다댄다. 쉬는 시간 내내 냄새 맡기에 바쁘다. 수습된 주위를 이 잡듯 하였지만 더 이상의 똥은 보이지 않는다. 화장실로 불만한 시설물도 찾을 수 없다. 할 수 없다. 주변의 돌을 다시 정리하고 흙은 모두 모아 체로 친다. 그 주 후반부는 똥 찾기에 분주하였다.

내가 한창 발굴현장 일을 배울 때에는 휴일이 따로 없었다. 그냥 비가 오면 쉬는 날이었다. 그 때와 지금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부터는 새로운 발굴문화가 생겼다. 요즘의 발굴전문기관들은 대부분 주말에는 현장 일을 하지

않는다. 복지 차원의 노동 개념이다. 하긴 흙일을 한다고 해도 정말로 중요하고 고급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고, 힘이 드는 것은 사무실에서보다 몇 배 더 하니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 우리 현장에는 이런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일을 하고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 하루를 쉬게 하였다. 당연히 조사원들은 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연구실에서 일주일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현장에 들어가 죽도록 땅을 팠다. 나는 하루도 쉬지 않는데 그래도 너희들은 하루라도 쉬지 않느냐로 억지를 부린 꼴이다. 혹 주말이나 일요일에 현장을 찾아오는 분들을 위한 배려이기도 했지만, 주말에 일을 도와주러 오는 고고학 공부하는 학생들을 부려먹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다. 특히 아내와 아이들의 원성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래도 날마다 밝혀지는 새로운 사실과 희귀한 유물이 쏟아지는 현장에서는 모두 신이 났었다.

목요일 아침 현장에 들어가면 개흙을 체질하고 있는 조사원과 아주머니들에게 처음으로 하는 인사가 '찾았어요?' 였다. 모두 그냥 웃고 만다. 일요일에 귀가하면서 내린 지령 '똥을 찾아라!' 때문이다. 처음 현장에서 똥이 나온 이후로 모든 흙을 체질하여 씨앗과 똥을 찾기에 열심이었다. 패총에서는 동물 뼈와 유기물이 많이 출토되기 때문에 여러 눈금

의 체를 만들어 중요한 부분의 흠을 체질한다. 실제로 작은 생선의 가는 뼈까지도 수습하고 그 자료들은 당시 사람들의 먹을거리와 생태계 연구에 활용된다. 어느 유적에서는 수 천 점의 흑요석 박편을 수습하기도 하였다. 당연히 하는 체질이지만 이 유적에서는 그 놈의 똥이 나오고부터 체질의 강도가 더 높아졌다. 덕분에 더 많은 양의 동물유존체와 열매, 씨앗 등의 유기물이 수습되기도 하였다.

고고학을 공부하면서 받은 부당한 대우랄까? 매일 남의 인골이나 사금파리 찾으러 다니는 사람으로 치부된 터인데, 이제는 똥을 찾고 있으니 한심하기도 하다. 일본의 동학들은 똥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화장실도 발굴하고 심지어 '화장실의 고고학'이라는 장도 열고 있는 판에, 우리는 아직 제대로 된 똥 덩어리 하나 찾은 바가 없어 개인적으로 얼마나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고? 광주 신창동 유적의 흠을 분석하여 기생충을 찾은 적은 있지만, 이 똥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물로 확인된 귀한 것이다. 糞石을 分析하면 기생충은 물론 배설한 주인공의 먹을거리가 무엇이었는데도 밝힐 수 있다. 그래도 '내사 하나밖에 없다'는 핑계로 아직 분석을 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도 똥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는 번설을 하면서 우리는 즐거워하였고, 지금도 이 유적 출토품을 견학하러 오는 연구자들에게 나는 여전히 똥을 자랑하고 있다.

한 달 쯤 지났을까? M대학의 K교수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 신석기시대 패총에서 똥이 나왔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발굴 현장의 똥 소식을 들은 탓에 참고로 나에게 연락을 한 것이었다. 달랑 한 덩어

리 나온 것이 아니라 '많이 나와부렸지라' 하는 호쾌한 사투리에 우리는 정말 기뻐하였다. 우리나라 고고학 사상 최초의 똥은 이런 숨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몇 년 후, 국립박물관 유물대장과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유물이 하나 등록될 것이다. 유물명 똥(糞石), 신석기시대, 창녕 비봉리패총 제1패각층 출토, 길이 3.8cm, 두께 2.0cm, 똥이 굳어 화석화 되어 있으며, 골편이 박혀 있어 사람의 것보다는 동물의 것으로 추정됨. 물질별 분류 옥석(?) 혹은 기타.



유물사랑 이야기를 하라는데 똥 이야기만 하였다.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남아 있는 한 가지만 더 사족을 달자. 지난 5월, 아름답고 감동적인 '강아지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권정생 할아버지는 한 포기 민들레가 되셨다. 지금쯤 '몽실언니'와 낙동강 어귀 어디에서 당신이 늘 치던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다. 내 고등학교까지 다니던 그 시골길을 찾아 꼭 한 번 뵙고 싶었는데…… 할아버지, 이제는 아프지도 배고프지도 말고 편히 쉬십시오. (2007. 8. 22, 雲門). 

바실리카 양식의 한옥

유 지 현 | 회원

처음 학교에 입학할 때의 설렘과 두려움으로 박물관 특설강좌를 신청했다. 뒤늦은 배움의 기대감으로 행여 놓칠 새라 달력을 거듭거듭 확인하였다. 그렇게 첫 강의가 시작되고 봄여름이 지나 가을이와 강의도 영글어 가고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가을바람, 가을햇살, 가을단풍에 이끌려 특설강좌의 마지막 답사지인 강화도로 떠났다. 노란 잎을 이고 있는 고풍스런 은행나무와 드높은 가을하늘은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며 맞이하였다. 옛사람의 발자취를 따라서 답사를 시작하였다. 아름다운 전등사를 보고 지석묘, 용흥궁을 거

쳐 성공회 강화성당으로 향했다. 한식 외관의 성공회 성당은 단풍든 담쟁이덩굴로 가을정취를 물씬 풍겼다. 고즈넉한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며 서성였다. 실내를 무심히 둘러보다 알 수 없는 신비감이 발목을 잡았다. 성당 책임자의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나도 모르게 빨려들었다

성공회는 1890년 우리나라에 처음 전파 되었는데, 강화에는 1893년 코프(C. J. Corfe) 초대 주교가 선교를 시작하였다. 강화성당은 1900년 트롤로프 3대 주교가 설계·건축한 것이다. 또한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준 곳이기도 하다. 건물은 외삼문과 내삼문, 성당, 사제관으로 구성된 한옥이다. 성당의 내부구조는 입구인 앞뒷칸, 會衆席, 至聖所, 小祭臺, 제대, 예복실로 배치되어 있으며, 내부에 석제 聖水臺가 있다. 바실리카 양식을

한옥에 적용하여 지은 것이 이 건물의 특징이다. 건물의 앞쪽에 뒷마루를 만들어 전실의 효과를 두고 있다. 안에는 高柱를 열주로 하여 내당을 만들고 그 앞쪽에는 지성소를 모셨으며, 역시 뒤에 후진의 공간을 만들어 예복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내당





을 좌우로 지나갈 수 있도록 측랑을 구성하고 있다. 내부의 바실리카 양식과 외부의 우리나라 사찰 양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마치 큰 예술품 앞에 선 듯한 잔잔한 설렘으로 마음을 다독여야 했다. 목재는 압록강에서 가져 왔으며 경복궁 공사를 한 익명의 대궐 목수의 영혼이 곳곳에 깃들어 있다. 조선식 천정, 유럽식 기둥의 그 오묘한 조합으로 유럽 문화와 조선 문화가 신 앞에서 하나됨을 경이로움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높게 보이는 조각 창문과 유리를 통해 비추는 저녁노을로 벽에 걸려 있는 성화가 더욱 성스럽게 보였다. 양 옆의 복도 식 높은 기둥들은 더욱 깊은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눈을 들어 천정을, 제단을, 세례단을 골고루 둘러보며 사진 속이 아닌 마음에 담아가려고 애썼다.

밖으로 나오니 건물 전체가 한 눈에 들어왔다. 경사면의 대지 위에 건물들을 질서있게 배치하고 앞

마당에는 보리수를 심고 외삼문은 솟을 대문과 담장으로 연결시켰으며 팔각지붕을 씌웠다. 절 건물과 흡사한 한옥 현판에는 「天主聖殿」이라 쓰여 있다. 지붕 끝에 십자가가 보이고 솟을 대문의 양문을 여미면 태극 문양의 십자가가 된다. 이 이색적인 조화 앞에 다시 신앙적·문화적 차이가 혼합된 종합 예술을 대하는 듯 했다.

한쪽 작은 정원에 있는 신부님, 수녀님의 조출한 돌비석 앞에 서서 당시 성공회 선교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포교 하였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 곳에서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깊이가 느껴졌다.

그동안 각기 다른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새삼, 모두가 우주 안에 하나됨을 나름대로 깨닫게 해주었다. 단지 표현 양식에 따라 분류되고 세분화된 강의였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 이것이 있고, 이것 안에 저것이 존재한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고 인간도 또한 그 속에 하나임을 알게 해주었다. 그것이 옳은 답인지 그른 답인지 알길 없으나 그냥 그렇게 내게 다가왔다. 

“요시노가리 유적, 일본 속의 고대 문화”

요시노가리 유적은 일본 규슈지방의 사가현에 위치한다. 사가현은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오래 전부터 한반도와 교류가 활발하여 우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 특히 요시노가리 유적은 한반도의 벼농사 문화 전파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으로 간돌검(磨製石劍), 반달모양돌칼(半月形石刀), 한국식동검, 점토대토기 등 한반도계 유물이 출토된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곳은 일본 야요이시대인 B.C.3세기부터 약 600년간에 걸쳐 형성된 일본 최대의 환호(環壕 : 방어를 목적으로 마을 주위에 둘러 도랑)마을 유적으로 1986년부터 발굴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야요이시대 초기(B.C.3세기~B.C.1세기)에는 소규모였다가 후기(A.D.1세기~A.D.3세기)가 되면 넓이 40ha가 넘는 대규모의 마을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후기에는 지배자의 생활공간 및 마을의 제사 공간으로 추정되는 구역(北內郭)과 지배계층의 사람들이 살았던 구역(南內郭), 物資들을 보관하고 주변마을 사람들과 交易을 하였던 시장 겸 창고 구역 등이 넓은 환호 내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규모로 보아 야요이 후기의 요시노가리 유

적은 일종의 都市와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마을 북쪽에 위치한 墳丘墓에서는 한국식동검과 유리관옥 등이 출토되고 있어 당시 한반도 문화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구묘는 야요이시대 중기(B.C.1세기~A.D.1)에서 후기에 걸쳐 만들어진 것으로 마을 지배자들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옹관묘를 대표로 하는 수천기의 무덤이 조사되어 당시 전쟁이 빈번하였음도 보여준다. 이 유적은 공원으로 복원되어 당시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요시노가리와 같은 시기의 필적할 만한 유적이 발굴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보다 앞 선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있다. 부여 송국리나 진주 대평리 유적이 이에 해당되며 요시노가리 못지않은 대규모 마을로 추정된다. 따라서 같은 시기의 대규모 마을, 일명 ‘한반도의 요시노가리 유적’은 앞으로 얼마든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특별전 “요시노가리유적, 일본 속의 고대 문화”는 요시노가리 유적을 소개하고 규슈 지역의 야



요이문화(彌生文化) 형성과 발전에 한반도의 영향이 컸음을 보여주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전시는 사가현 교육위원회와 공동 개최되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을 순회한다. 10월 15일~12월 2일까지는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며 2008년 1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는 일본 사가현립미술관에서 열릴 계획이다.

전시는 크게 프롤로그, 한반도의 농경문화와 일본 전파, 야요이마을의 탄생, 고대 한반도와 야요이마을의 생활, 에필로그 등 5부로 구성된다. 그중 '한반도의 농경문화와 일본 전파'와 '고대 한반도와 야요이마을의 생활'에서는 일본에 영향을 준 한반도 문화를 추적해 볼 수 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서는 야요이시대의 한반도에서 출토된 일본 유물을 볼 수 있어 양국의 문화 교류가 가지는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 중 '한반도의 농경문화와 일본 전파'에서는 여주 혼암리, 진주 대평리, 부여 송국리 등 유적을 통해 한반도 벼농사의 시작과 발전을 밝히고, 야요이시대 초기의 벼농사 유적인 나바다케(菜畑)유적 출토품과 지석묘 유적인 마루야마(丸山)유적 출토품을 전시하여 이들 유적이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이 두 유적의 출토품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 일본 야

요이 문화의 시작이 한반도의 벼농사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대변해 주는 것들이다. 이처럼 한반도 벼농사 기술의 일본 전파는 오랫동안 지속된 조몽시대(繩文時代 B.C.10,000~B.C.4세기)의 종말을 재촉하고 야요이 문화로 새롭게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고대 한반도와 야요이마을의 생활'에서는 요시노가와와 그 주변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이들 중 한국식동검, 다뉴세문경, 점토대토기 등 한반도와 관련된 유물들은 우리나라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비교 전시하여 그 영향의 정도를 짐작하게 할 계획이다. 고대 한반도와 야요이마을에서 출토된 각종 목기와 토기, 철기 등을 통해 당시 야요이인의 일상생활과 의례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전시 기간 중에는 곡옥 만들기, 흙피리 만들기 등 당시 한반도와 일본 사람들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와 전시를 관람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교육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1월 10일에는 한일양국의 관련 학자들이 참여하여 당시의 한일문화교류상을 되짚어보는 국제학술심포지엄도 예정되어 있다.(전시팀) 

교동동굴의 추억

최 영 애 | 국립춘천박물관 자원봉사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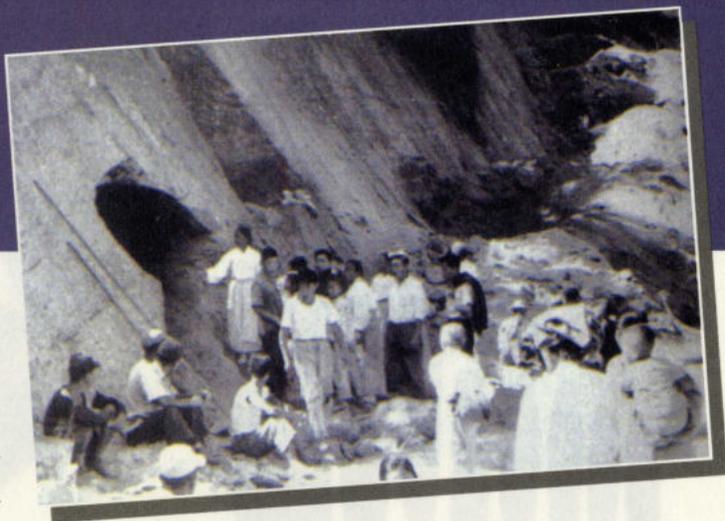
춘천의 신흥개발지역인 애막골에는 수려한 숲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건물이 있다. 2002년에 개관한 국립춘천박물관이다. 자연 경관을 최대한 살려서 조성한 부지와 기막히게 어울리는 박물관은 지역사회에서도 아주 멋지고 격조높은 건물로 손꼽히고 있다. 춘천에 국립박물관이 들어서자 조용한 도시에 잔잔한 문화적 충격파가 던져졌다. 그 파장의 언저리에서 나도 무엇에 끌린 듯 박물관을 드나들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박물관 자원봉사자가 되었다. 사실 무엇보다 강한 자력을 발휘한 것은 춘천 교동동굴이었다.

개관 후 처음 전시실에 들어섰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1층의 첫 번째 전시실인 '선사의 강원' 신석기 코너에서 가슴 벅찬 순간을 맞았다. 양양 오산리와 지정리 유물을 지나자 춘천 교동동굴 전시장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이루어진 뜻밖의 상봉이 믿기지 않았다. 동굴의 단면도와 인골이 배치된 모습을 스케치로 그린 패널 밑에 석기와 토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그들과 나는 이미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었다. 전시장 앞에서 내 기억은 유년 시절로 재빠르게 거슬러 올라갔다.

춘천 시내 한 가운데에는 평지 돌출형으로 외롭게 솟은 산이 있다. 봉황의 자태를 닮아서 봉의산이라는 이 산기슭에 성심여자대학이 들어서게 되

었다. 건물 공사를 위해 부지 정리를 하다가 동굴이 하나 발견되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던 나는 학교가 파한 후 동네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어떤 아이가 봉의산에 구경거리가 있으니 가보자고 했다. 지금처럼 학원이나 과외가 없던 시절이라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사방치기나 고무줄 놀이 공기놀이 등으로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였다. 새로운 구경거리가 있다는 말에 한 무더기의 아이들은 10분 쯤 걸리는 거리를 단숨에 뛰어갔다.

불도저로 산기슭의 흙을 여기저기 밀어놓은 한 구석에 여러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엇인가를 보고 있었다. 생나무로 거칠게 짠 평상에는 돌 조각들과 흙으로 만든 크지 않은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흡사 양초 같은 하얀 막대기도 눈에 띄었다. 길이는 한 뼘이 안 되어 보였고 가운데는 동그랗게 속이 비어 있었다. 흰색 중간에 금가루 같이 반짝이는 것도 있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평상 앞에는 동굴이 있었다. 어른들을 따라서 나는 끌린 듯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에는 희끄무레한 굵은 모래가 깔려 있었다. 누군가가 천정을 보라고 했다. 검댕에 이리저리 굵힌 자국이 보였다. 옛날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 했고 돌 파편과 흙그릇도 그들이 쓰던 것이라 했다. 무척 신기하고 궁금했지만 더 이상은 알 도리가 없었다.



춘천 사람들은 봉의산을 쳐다보면서 계절의 변화를 느낀다. 그 후 나는 산을 볼 때마다 자꾸 그 동굴이 떠올랐다. 자그마한 흙그릇들과 하얀 대롱이 기억의 창고에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리라. 중학교 역사 시간에 처음으로 교동동굴에 대해 배웠다. 신석기시대 유적인지 청동기 시대인지도 기억이 안날 만큼 공부시간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했지만 어디서건 그 동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두근거림과 애뜻한 마음이 함께 일어났다. 교동동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자원봉사자가 된 후였다.

1962년 공사를 하다 발견된 동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인부들은 가운데로 발을 모으고 누운 세구의 인골과 돌맹이와 토기들을 발견했다. 인골들은 30cm가량의 고운 모래로 덮여 있었다. 오래된 묵은 뼈가 불치병에 약이 된다는 속설을 믿은 인부들은 자루에 인골을 쓸어 담고 토기 등을 나누어 가졌다. 천정의 검댕을 긁어 담은 사람도 있었다. 며칠 뒤에 이 소문을 들은 고고학자들이 달려오고 경찰들은 인부들의 집을 방문하여 재떨이 등으로 사용되고 있던 토기를 회수했다. 그러나 인골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비상적인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평상에 펼쳐 놓은 석

기와 토기들을 우리 꼬마들도 만져보고 쓰다듬지 않았던가.

도끼 등의 마제 석기와 바닥이 평평한 토기들로 인하여 유물의 연대는 청동기로 판명을 받았었다. 마제 석기 중에는 굽은 못 정도 길이와 굽기에 끝이 약간 흰 것도 있었는데 그 용도는 미스터리였다. 대롱옥의 구멍을 파는데 쓰는 '뚜르개'라는 설도 있었다. 후에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 유적이 발견되면서 첨저형 토기 이전에 평저형 토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용도 미상의 석기가 이음납시임을 알게 된 후에 교동동굴의 연대는 신석기 전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양양과 춘천이라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바닥이 평평하고 구연부에만 시문이 되어있는 토기와 이음납시가 같은 형태로 출토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교동동굴은 풍화된 화강암반을 인공으로 파 만든 지름이 약 4m가량 되는 원형굴이다. 세구의 인골은 발을 중앙에 모으고 머리는 동·서·남쪽



을 향하고 있었다. 출토 유물에는 큰 돌도끼, 돌끌, 돌망치, 돌송곳 등 석기류와 항아리 모양의 빗살무늬 토기류 5점, 대롱옥 수정조각들이 있다. 천정의 검댕으로 보아 주거지로 쓰이다가 세 사람이 죽은 후에 무덤으로 바뀐 우리나라 선사 유적지 중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주거지 겸 무덤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봉의산에서 사냥을 하거나 소양강에서 이음낚시로 고기를 잡아서 이 동굴에서 불을 피워 조리를 하고, 고단한 하루의 피로를 풀었을 것이다. 당시의 생존이 얼마나 처절했겠느냐는 하얀 옥을 구해서 예쁘게 다듬기도 했고 투명한 수정조각을 소중하게 간직하기도 했다. 점토를 찾아내어 토기를 빚고 그늘에 말린 후에 불에다 구웠으리라. 어느 날 같이 살던 사람들이 죽으니 주거지였던 곳을 영원한 안식의 공간으로 내어주고, 그들이 아끼던 물건들을 놓은 채 동굴 입구를 막은 듯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떠나 버렸을까. 신석기인이라면 정착 생활을 했으니 그들의 자취는 이 땅 어딘가에 남아 있으리라. 교동동굴이 내 유년 시절과 인연을

맺은 후에 이렇듯 나를 사로잡고 있듯이, 그들의 흔적도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고 있을까.

박물관 체험은 이제까지 내가 경험한 어떤 문화 생활보다 신선하고 감동적이다. 유물에 대한 지적 호기심 때문에 뒤늦은 향학열을 불태우고 있다. 춘천박물관의 기초 교육을 시작으로 일년 동안 서울까지 기차 통학을 하며 국립중앙박물관회 특설강좌를 들었다.

그 동안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유물 설명을 하면서 느낀 즐겁고 보람있는 경험은 노후에 반추할 추억으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진지하게 들어주는 관람객과 함께하는 시간이나, 설명을 마치고 박수를 받을 때, 시내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관람객을 만났을 때, 박물관 자원봉사자가 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봉사를 받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든다. 아주 늙은 후에 언젠가 춘천박물관을 찾아서 교동동굴 유물과 다시 만나 유년시절의 추억과 자원봉사하던 모습을 회상하고 싶다. 



박물관 주변 들꽃

박물관 주변으로 눈을 돌리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우리의 야생화를 감상할 수 있다.

9월 18일

범부채 황적색꽃에 호랑이 무늬 같은 반점이 있고, 모양이 마치 접이부채를 반쯤 펴 놓은 것 같아서 범부채라 한다. 민간에서는 뿌리를 소염, 진통, 해열 등에 사용하기도 한다. (대형주차장 앞 자작나무길)

산사나무(열매) 장미과의 키 작은 나무로 열매의 신맛을 살려 떡, 술, 정과 등을 만드는데 쓰인다. 한방에서는 소화제, 정장제로 사용한다. (후원 주변)

싸리나무 蜜源식물로, 농촌에서는 딸감으로 이용하며 여러가지 세공재료로도 사용한다. 잎을 달여서 신장염, 신부전증 등에 쓴다. (미르못 주변)

참취 취나물은 무기질이 많아 우리 몸에 원기와 활력을 준다. 타박상이나 뱀에 물렸을때 치료약으로 쓰며, 잎과 줄기를 이용하여 암갈색의 염료를 추출한다. (전통염료식물원 주변)



▲ 산사나무(열매)



◀ 범부채



◀ 참취



싸리나무 ▲

자료 |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 김종혁

후원사업

박물관 전시, 연구·교육·문화사업을 지원하여 박물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한다.

■ 유물기증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물 확대와 기증문화운동의 사회적 확대를 위해 유물을 구입하여 기증한다.
 천전리암각화모형
 청자벼루
 18세기 노안도족자
 화조8폭병풍
 독일제 유물진열장
 국외로 반출된 조선시대 화각함
 베트남 청화백자
 로버트 세이어의 일본제국과 한국왕국의 지도
 청주군지도
 위창 오세창 와전문 서예전각 10폭 병풍
 위창 오세창 상형고문
 기원 유한지 예서
 소정 변관식 백납8폭 병풍 등을 구입 기증했다.

■ 학술연구

'국립중앙박물관회 학술상'을 제정하여 박물관의 연구활동을 돕는다.

■ 사업지원

전시 공동개최와 특별전, 발굴조사 등을 지원한다.

우리 회에서 박물관 및 국내외 박물관 후원 모임과의 활발한 교류를 형성하고, 회원 누구나 유쾌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합니다.

새 홈페이지 오픈예정일 : 2007년 11월 7일



사회교육

우리의 역사와 전통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운영한다.

■ 특설강좌

우리나라 사회교육의 효시로서 일반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며, 전통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양을 높이기 위해 1977년 개설, 그동안 만여 명을 배출했다. 목·금요일 각 200명씩 400여 명을 모집해 한국사·인류학·고고학·미술사 등을 중심으로 50여 회의 강좌와 전시실교육, 국내외 고적답사 등을 진행한다.

■ 연구강좌

특설강좌를 수료한 후 지속적으로 공부하도록 개설하였다. 한국사·동양사·고고인류·사상사·불교미술·미술사·세계문화A, B 등 8개 강좌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약 1,400여 명이 수강한다.

■ 고적답사

1975년부터 시작해 350여 회를 넘었다. 매월 박물관·사찰·사지·발굴현장 등 국내외 주요유적 답사와 1988년부터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국외답사를 운영한다.

■ 학술강연회

회원과 일반인에게 매년 3~5회 정도 국내외 전문 학자를 초빙하여 박물관 특별전과 관련된 주제, 발굴보고, 학계발표 연구내용을 강의한다.



자원봉사

박물관교육을 받은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 외지발간 자원봉사

기획 편집·원고 수집 정리·디자인 작업·회원 및 관련기관에 배포

■ 교육진행 자원봉사

박물관 특설강좌·연구강좌 교육진행 보조

■ 회원안내 자원봉사

박물관회 회원가입 안내 및 홍보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안내데스크)

법인회원 사용가능 박물관시설

대강당	400명	열린마당	2,500여명
소강당	200명	열린마당 옆 공간	200여명
강의실(1,2)	100명	정문 앞 광장	1,500여명
극장 '웅'	800명	후원마당	400여명
버금홀	100여석	후원 매화원	100여명
거울못레스토랑	160여석	레스토랑 옆 공간	200여명

- 사용시간은 09:00~18:00 이나 박물관 사정 및 용도에 따라 다소 조정가능.
- 시설사용은 사전협의 하여야 함. (일부 시설은 유료 사용).

☀ 원고를 받습니다

회지(전시실 산책·답사를 다녀와서·자원봉사를 하면서 등)에 글을 실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200자 원고지 12매 정도)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했다. 그동안 洪鐘仁 1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李大源,金相万,金聖鎭,鄭鎭肅,金榮秀,俞相玉 회장을 거쳐 2005년 11월 柳昌宗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 柳昌宗
副 會 長 | 徐載亮·吳志哲
理 事 | 金紅男·朴仙卿·朴亨植·申硯均
安聖基·李健茂·李斗植·李仁洙
田永采·鄭明勳·池健吉·崔科南
監 事 | 金義炯·鄭建海
事務局長 | 辛炳讚

회원은 현재 3,000여 명으로 일반·특별회원과 기부회원이 있고, 기부회원은 천마·금관·은관·청자·백자·수정회원으로 나뉜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심의하여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의 회비는 천마회원 일억원 이상, 금관회원 오천만원, 은관회원 삼천만원, 청자회원 일천만원, 백자회원 오백만원, 수정회원 이백만원 이상으로 한다.

» 법인

■금관회원

팬택&큐리텔 | 朴炳燁
(주)한섬 | 鄭在鳳
(주)STX | 姜德壽

» 개인

■금관회원

俞相玉 |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千信一 | 세종옛돌박물관장
朴容允 |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은관회원

柳昌宗 |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鄭明勳 | 서울시향 고문
金鍾漢 | (주)종합전기 대표

■청자회원

趙炳舜 | 성암고서박물관장
金榮秀 | 변호사
玄明官 | 한나라당 경제활성화 특위위원
愼昌宰 |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金永玟 | 김&장 법률사무소
徐載亮 | 재)아름지기 이사
田永采 |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韓奉珠
胡鍾一
申硯均
李雲卿
金英惠
李美淑
鄭在昊
李明姬
朴仙卿
李起雄
辛永茂
李仁洙
辛炳讚
朴載蓮
李鈴子
柳芳熙
朴海春
金宗學
都炯泰
申聖秀

호성흥업회장

재)아름지기 이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제일화재 이사장

삼표산업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용인대학교 부총장

열화당 대표

법무법인 세종 대표

수원대학교 이사장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성곡미술관 이사

(주)풍산주택 사장

우리은행장

화가

갤러리 현대 대표

고려산업 회장

■백자회원

李京姬 | 수필가
洪錫肇 | 변호사
李興杓 | 국립중앙박물관회 직원
金惠蓮 | 대학강사
崔科南 |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
李健茂 | 용인대 교수
韓載京
柳憲辰 | 코한인터내셔널
高錫銘 | (주)크린텍 회장
李殷子
鄭叔熹

책을 만들면서

내가 움직 이는지
별이 움직 이는지
무엇이 움직 이는지
우리는 몰라요.

보이고
느껴지고
생각나는 것이
마음 인걸.....(水)

만원짜리 신권의 별자리조차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던,
내겐 너무도 길~었던 여름여여!! (정)

번잡한 불빛에
슬그머니 손을 놓아버린
그대
내게 다시 윈크를 보내줄까? (河)

사람들 가슴엔
후두둑 가을비 뿌리는 대숲 하나씩 있다고
어느 시인이 그러던데
올해는 가을비도 어찌 이리 흔하던지요 (진)

지난 여름 생각하며
한 글자씩, 한 문장씩 이어가다보니
또 다시 떠나고 싶어지는
이 욕심....어찌하나.....(愛)

모진 여름을 이겨낸 형형색색의 꽃들이
박물관 뜰에 가득하다.
그 아름다움에 한껏 취해 본다.(리)

별처럼 깊은 생각과
별처럼 맑은 마음은...
가을 하늘에 그러합니다. (信)

발행일 | 2007년 9월 15일
발행처 | 국립중앙박물관회
발행인 | 유창종
기획 | 신병찬
편집위원 | 정미희·정혜리·조애경·진수옥·하영남
진행 | 이진성·강신애

사단법인 국립중앙박물관회
140-026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6가 168-6 국립중앙박물관
전화 : (02) 2077-9790~3
전자우편 :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 www.mumes.org

본 회지의 내용은 본 회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지를 받아보고 싶은 분은 국립중앙박물관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남원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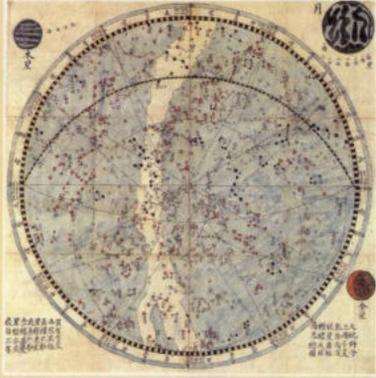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표지 그림 이야기
황도남계총성도 이 조선 후기 천문도는 황도좌표계를 사용하여 북반구의 별과 남반구의 별들을 따로 그린 것으로서, 남반구의 별들을 그린 남계도(南界圖)이다. 천문도의 바탕은 옅은 청색이며, 별은 적·황·흑의 3색으로 구별하였고 은하수는 흰색이다.

국립중앙박물관회는 박물관을 사랑하고 배우고 느끼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박물관 후원사업 · 사회교육 · 자원봉사 · 공익적인 문화사업 등을 합니다.